✓ I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남 >

Q



뉴스홈 | **최신기사** 

## <월드컵축구> 중원 공백 '원희냐 치우냐'

송고시간 I 2009-03-31 18:41











배진남 기자 기자페이지

<월드컵축구> 중원 공백 '원희냐 치우냐'

(피주=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을 앞둔 허정무 감 독의 고민은 경기 전날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바로 중원 구상 때문이다.

허정무 감독은 북한과 대결 하루 전날인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대표팀의 마지막 훈련을 지휘했다.



총 1시간20분 정도 진행된 이날 훈련 중 허 감독은 15분씩 2라운드로 진행된 미니게임을 통해 북한전 선발진 구상을 드러냈다. 주전조 라인업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성용(서울)의 짝으로 배치할 중앙 미드필더 자원을 놓 고서는 허 감독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났다.

허정무 감독은 경고 누적으로 북한과 대결에 뛸 수 없는 김정우 (성남)의 공백을 메우려 조원희(위건)를 불러들였다. 하지만 조원 희는 지난 28일 이라크와 친선경기에서 기성용과 선발로 나와 호흡을 맞추다 오른쪽 종이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조원희는 29일 회복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30일 오후 훈련 에서는 전날 훈련 중 오른 발목을 삐끗한 공격수 배기종(수원)과 함께 최주영 의무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따로 훈련했다.

하지만 조원희와 배기종 모두 이날 최종훈련은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허 감독은 1라운드에 김동진(제니트)을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했다. 김동진은 가끔 중앙 미드필더나 중앙수비수로 나서 긴 했어도 주 포지션은 왼쪽 풀백이다.

허 감독은 슈팅력 등 김동진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원래 맡아 본 자리가 아니라 만족스럽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2라운드에서는 김동진 대신 조원희를 투입해 몸 상태를 점검했다. 2라운드 막판에는 조원희를 빼고 김치우(서울)를 들 여보냈다. 이후 김치우가 찬 왼발 프리킥은 골키퍼 손을 스쳐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다.

허 감독은 조원희를 따로 불러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허 감독은 훈련 후 "자꾸 염려가 돼 물어봤는데 원희가 괜찮다고 한다"면서 "아픈 것을 참고 뛰다가 좋지 않을 것 같으면 먼저 얘기할 텐데 괜찮다더라. 출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틀 몸조리를 하고 오늘 운동을 했으니 내일 아침 일어나서 상태를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hosu1@yna.co.kr





##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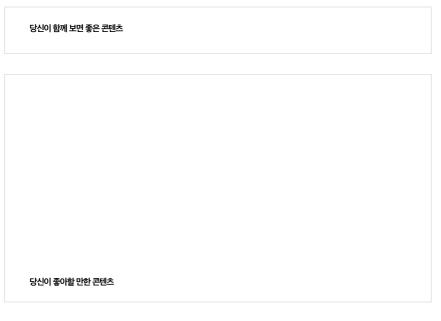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3/31 18:41 송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We Do Technology

● 뉴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2년1개월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임뉴스











sns **f** 





| 新聞機能の | 「おおお | 「おおか | 「おおか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v